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In

International Social Economy Policy Focus

8월 테마 - 사회적경제를 통한 돌봄 활성화

정책 In. 돌봄 정책 : 혁신 가능성

사례 In.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아동 돌봄

뉴스 In. 돌봄 주요소식 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돌봄 정책 : 혁신 가능성

여는 팬데믹 이후의 변화처럼, 코로나19는 진행되고 있던 변화들을 가속화하고,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있거나 직면하고 있지 못했던 사회의 취약점들을 대면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돌봄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우리사회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한다. 가족은 쪼개지고 독거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돌봄 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그 부담은 직계가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났고 특히 그 결과는 여성에게 더욱 혹독하게 나타났다. 핵가족 증가 및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돌봄의 수요와 종류는 나날이 확대, 세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에서 도맡았던 돌봄, 가사노동 등 비공식 노동의 영역은 노동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ILO,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돌봄을 공익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필요를 충족해 온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

이번 호 「Zoom-In」에서는 특히 아동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사회서비스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조건과 사례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정책N]에서는 2016년 UNRISD¹⁾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비록 발표된 지 몇 해가 지나간 하였으나, 그간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 필요 영역이 확대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영역의 취약점이 드러난 시점에서 시점에서 우리사회 돌봄서비스 정책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돌봄 정책은 여성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돌봄정책은 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 등 여러 사회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의 관점처럼 돌봄을 사회적 유급 노동으로 전환해서 바라본다면, 각 가정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돌봄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창출효과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합동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을 통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돌봄 정책을 추진할 때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원 문]

“Care policies Realizing their Transformative Potential”, UNRISD, 2016

1. 도입

그동안 가정에 맡겨지고 여성들이 경제적 보상 없이 수행해왔던 돌봄 노동이 사회적인 의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돌봄 정책은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노동 등 사회전반의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돌봄을 복지 제도로 설계해 왔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공공 돌봄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소득 상위 계층만이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의 재분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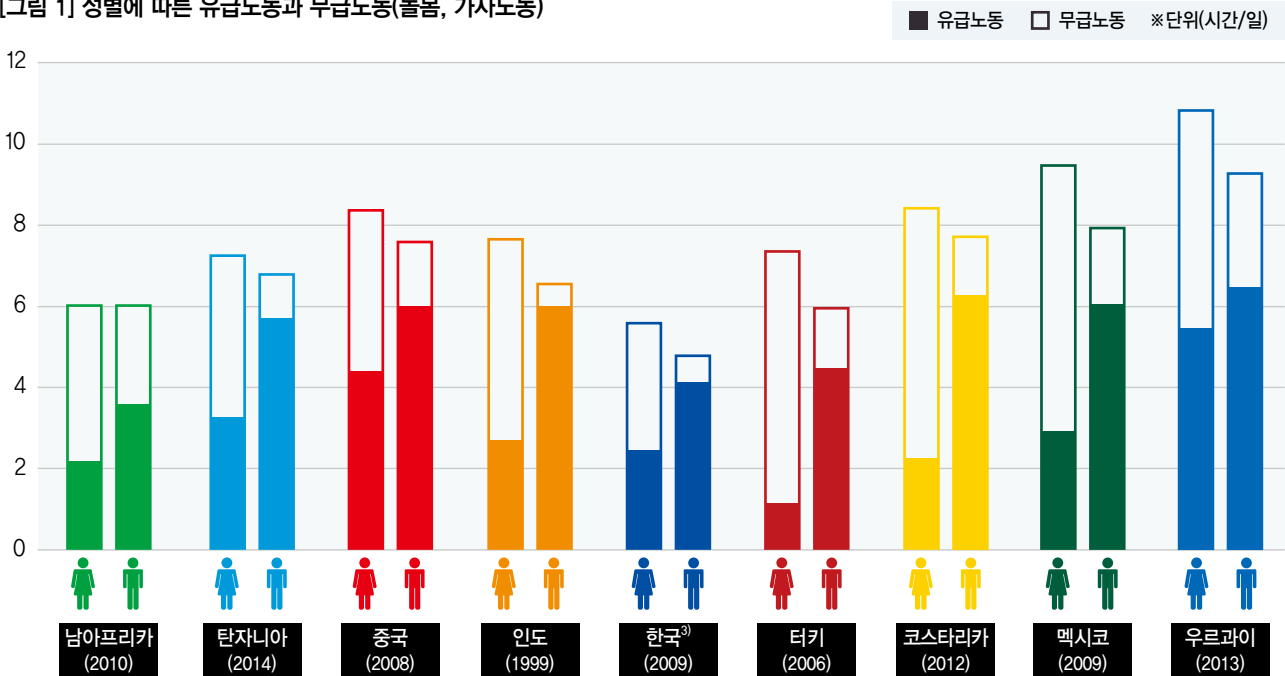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경제활동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여성들은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비롯한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된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며, 돌봄 정책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²⁾ 5번째에 해당하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과 관련된다.

이 글을 통해 성평등을 비롯한 사회변화를 위해 돌봄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돌봄 정책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¹⁾ 유엔사회개발연구소로 개발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하는 유엔 산하 연구기관
²⁾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로 한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 정책 : 혁신 가능성

[그림 1] 성별에 따른 유급노동과 무급노동(돌봄, 가사노동)



2. 돌봄 정책과 다른 사회 정책의 연계성

돌봄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재분배하는 미취학아동 교육 및 돌봄(ECEC, Early Childhood and Education Care) 서비스, 환자·장애인·노인 돌봄 정책
- 여성과 아동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간접자본 제공
- 아동과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공공업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및 수입 안정성
- 출산수당, 육아 휴직 등 노동시장 정책

(1) 공공서비스와 돌봄 정책

돌봄은 특히 미취학 아동, 노인, 장애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에이즈 감염자 등에게 필요하다. 미취학 아동 돌봄 정책은 국가별 차이가 상당하며, 노인 돌봄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 기반 돌봄 서비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50% 수준이다.

HIV 및 에이즈 감염자 돌봄의 경우 대부분 여성들이 돌봄 노동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소녀들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공적 돌봄 정책이 없다.

(2) 사회간접자본과 돌봄 정책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서도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물, 위생, 전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돌봄 수행이 더욱 어렵다. 세계 약 6억 6,300만 명이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고, 물을 길러오는 일은 여성과 아동이 담당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경우, 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식수를 운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여성은 64만개, 남성은 1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3) 사회보장정책과 돌봄 정책

사회보장정책은 돌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 재분배를

³⁾ 통계청, 여가부의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 취업여성의 가사시간(가정관리+돌보기)은 2시간 24분으로 취업남성의 가사시간(49분)에 비해 하루 평균 1시간 35분 더 많다.

돌봄 정책 : 혁신 가능성

이뤄낸다.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며, 이 현금은 아동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해 사용된다. 아동 양육 수당을 제공하는 등 가족 혜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국가는 전세계 108개국으로 이 프로그램들에 지출되는 비용은 세계 평균 GDP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유럽은 2.2%, 아프리카는 0.2%를 차지한다.

현금지원, 공공업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약 7억 1,800만 명이며 일정 부분 빈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단, 세계 인구의 약 52% 정도만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성의 연금 보장은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낮은 고용률 및 저임금이 원인이지만 여성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칠레 정부는 여성의 아동 돌봄 노동시간을 보수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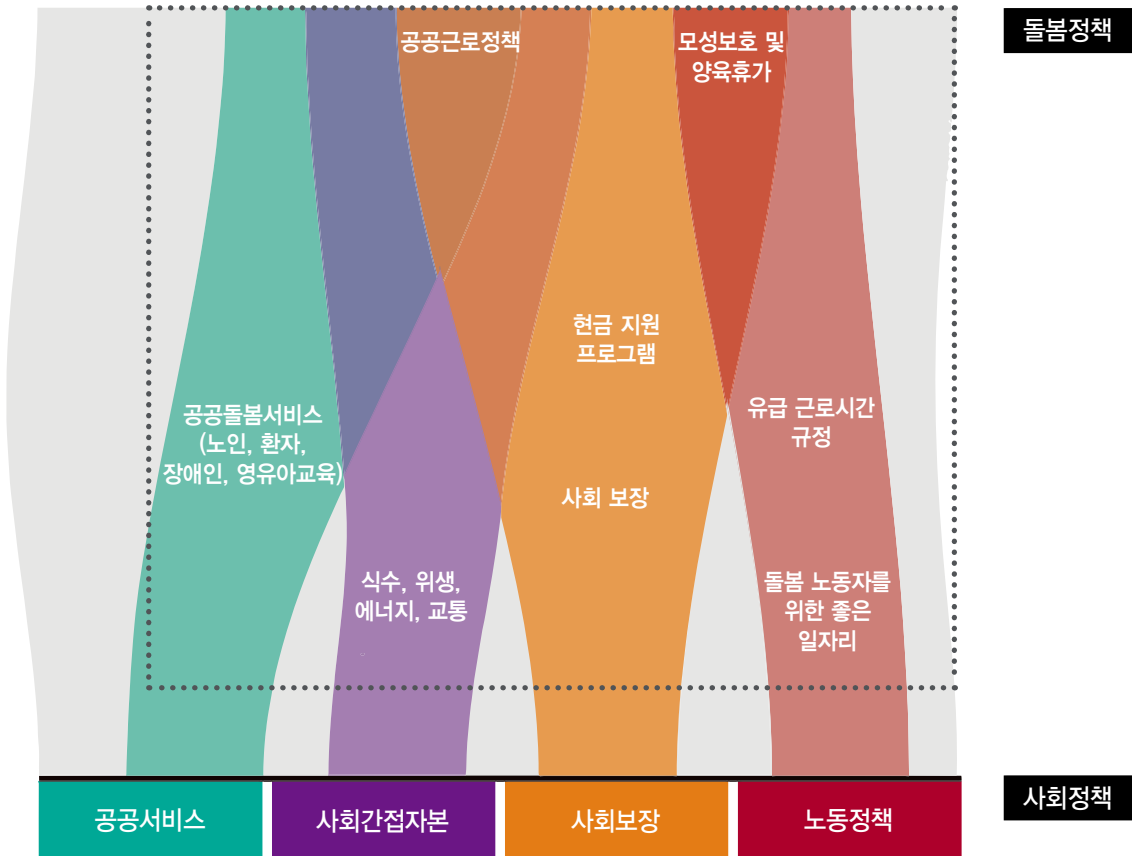
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4) 노동정책과 돌봄 정책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주입되는 모성 역할로 인해 돌봄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경제 활동을 그만두게 되고, 경력단절은 여성의 임금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세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통해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비율은 약 40% 정도이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57% 이다. 즉, 약 8억 3,000만 명의 여성이 적절한 출산 보호, 모자 건강과 같은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은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더 낮아진다. 자국에 가족을 두고 온 이민자인 경우 '국제적 돌봄 연계(global care chains)'를 필요로 한다.

[그림 2] 사회정책의 각 부문들과 연계되는 돌봄 정책



돌봄 정책 : 혁신 가능성

3. 돌봄 정책을 통한 사회 정책의 혁신

돌봄 정책은 공공 돌봄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사회 정책들과 연결되고 상호 보완되며 사회를 변화시킨다.

온종일 돌봄시설, 아동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여성들과 가족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동 돌봄 및 교육 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4년에 설치된 코스타리카 돌봄 네트워크(the Costa Rican Care Network)를 통해 6세 이하의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도에서는 통합 아동 발달 서비스(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를 시행하여 시골 지역의 6세 이하의 아동과 어머니 대상으로 모자건강, 영양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정책은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준다. 인도에서는 돌봄이 경제적인 활동이 아닌 자발적인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명예금'이란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돌봄 이용료는 낮추되 정부의 보조금 및 민간 편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러 사회정책 소관부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단, 학계, 돌봄 종사자들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예산도 보건,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돌봄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돌봄 의제의 변화

돌봄이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한 것은 최근이다. 돌봄 의제는 다층적이며 다른 규범과 정치적 틀로부터 유래한다. 돌봄을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누가 제공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성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공공 차원에서의 제도적 설계와 구현이 필요하다.

돌봄을 남성과 여성, 유급 및 무급 노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5년 베이징에서는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식(Recognizing)하고 감소시키고(Reducing), 재분배(Redistributing) 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 'Triple R' 캠페인은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인식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돌봄 정책 고안 및 실행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돌봄 서비스와 육아 휴직을 포함한 정책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학자, 노동부 공무원, 여성 노동조합원 등이 전략적으로 국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도 가족단위, 국가단위, 비영리 부문과 시장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의제 상으로도 돌봄 노동자, 장애인, HIV 및 에이즈 보균자, 아동 권리 차원에서 돌봄 의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는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제화로 권리가 향상되었다.

5. 돌봄 정책 변화를 위한 방법

시민사회, 학계, 노동 운동, 정치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국가와 함께 돌봄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와 같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돌봄제공자와 돌봄 수혜자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었다. 또한, 네팔에서는 변호사, 언론인, 여성운동 진영, 학계 및 기타 여러 활동가들이 정책의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로비를 하여 무급 돌봄에 대해 인식하도록 했다.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1995년 후반, 125개국에서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분석하는 국제조사가 이뤄졌다. 이 조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을 정규적인 노동으로 보지 않았던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6. 국내 시사점

우리나라도 돌봄과 가사노동은 아직 여성의 전담이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역할은 여성에게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0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코로나19 발생 전후 여성의 돌봄 노동'을 주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성 80명을 인터뷰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약 40%였으며, 발생 이후에는 70%로 확대되었다. '돌봄의 90% 이상을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서 43%로 크게 증가했다.

돌봄 정책 : 혁신 가능성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49분인 반면 여성은 2시간 24분으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가사 노동시간이 많다. 이처럼 돌봄 정책은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의 재분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을 발표했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이 결합된 돌봄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지금까지 지내 온 정든 지역에서 함께 지내온 지역 주민들과 죽음의 마지막까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기에 2019년 커뮤니티케어서범 사업 및 선도사업에 안산, 부천, 화성, 전주의료사협이 참여했다. 또 지자체와 인천평화, 마포, 느티나무, 용인해바라기, 시흥희망의료사협 등 다수의 의료사협이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되듯이 돌봄 정책은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건강, 교육, 노동, 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의 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방안에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분야의 돌봄 정책이 활성화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아동 돌봄

[정책In]에서는 UNRISD 보고서를 통해 돌봄 정책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례In]에서는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의 아동 돌봄을 위해 정부 당국 및 관련 기관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WEGO가 발간한 'Women Informal Workers Mobilizing for Child Care'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여성에게 돌봄 의무가 더 많이 돌아갔던 브라질, 가나, 인도 등에서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다룬다.

1. 브라질 : ASMARE 협동조합의 돌봄모델 구축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모인 ASMARE(the Association of Paper, Cardboard, and Recyclable Materials) 협동조합은 1990년 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에서 설립됐다. 이 협동조합은 학교, 기업, 주거지 등에서 자재를 수거하는 전직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종이, 하드보드, 플라스틱, 금속 등 매달 500톤의 재료를 재활용해 판매한다.

ASMARE 협동조합은 2002년 7개 폐기물 수거 협동조합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를 대상으로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들은 자녀의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토론을 벌였다. 보육서비스 부재로 인해 여성 조합원들이 자녀와 함께 출근해야만 하는 문제, 폐기물 수거 현장에서의 어린이 노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정부와 함께 참여 예산절차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통해 ASMARE 협동조합은 재활용 센터 내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정부와 재단 등의 도움을 받아 근처에 어린이 보호 센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무렵 유아 성장과 관련한 서비스들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4년에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운영하던 어린이 돌봄 센터를 'UME Carlos Prates'로 불리는 공공 어린이 돌봄 서비스인 UME(Unidades Municipais de Educação Infantil)에 통합했다.

UME Carlos Prates 센터는 주로 비공식 노동자인 폐기물 수거업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이용의 70%는 폐기물 수거업자의 자녀다. 보육센터는 시내에서 유일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어린이집이다.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일하기 때문이다. 센터에는 직원 27명이 4교대로 일하며 80명의 아이들을 돌본다⁴⁾.

(Accra Metropolitan Assembly, 이하 AMA)는 1987년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면서 어린이 돌봄센터를 건립했다. 현재는 가나 무역 협회(GATA)가 이 센터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센터 건립 이전에는 상인들이 어린 자녀를 시장에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부모의 일이 끝날 때까지 시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놀았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었기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아크라 마콜라 시장의 여성 상인들은 업무 시작 전 시장의 돌봄센터에 아이들을 맡긴다.

보육 서비스를 통해 상인들은 자녀가 가깝고 안전한 곳에 있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산모들은 모유 수유를 위해 낮에 센터에 들릴 수 있다. 시장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 집꾼도 아이를 센터에 맡길 수 있다.

센터는 공식적인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지만 상인들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센터는 아이들에게 정부가 승인한 아칸어 교육과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센터는 10명의 교사가 1~5세 사이 140명의 아이들을 돌본다. 센터 운영비는 부모가 일부 부담하는데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비용을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월 사용료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여성 집꾼들을 위해 가나무역협회가 일정 부분 비용을 대신 지불하며, 지불한 한도 내에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시장 상인들도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시장 책임자들을 포함한 학부모, 교사 협회가 함께 운영한다. AMA 교육 및 보건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센터를 점검한다. 현재 시장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도시 계획이 진행 중이며, 여성 시장 상인들은 센터의 리모델링을 건의하고 있다.

2. 가나 : 마콜라 시장의 아이돌봄센터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 지역의 아크라 메트로폴리탄 의회

⁴⁾ 브라질은 재활용수집 노동자를 2001년 국가직업분류시스템에 포함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을 '폐기물수거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관련 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한 것이다.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아동 돌봄

[표] 여성 비공식노동자의 자녀돌봄 방법⁵⁾

브라질	
공공 아동돌봄시설	63%
가족	37%
합계	100%
가나	
학교	91%
시설 아동돌봄시설	9%
합계	100%
인도	
비영리 아동돌봄시설	38%
가족	28%
집에 방치	20%
공공 아동돌봄시설	13%
합계	100%

3. 인도 : 자영여성협회 SEWA가 만든 아동돌봄협동조합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The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는 여성 근로자 150만 명을 대표하는 노동자 권익 향상 단체다. 인도 16개 주에서 비공식 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SEWA는 1972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있는 도시 아마다바드에서 처음 시작했다. 회원으로는 농부, 건설노동자, 가사노동자, 길거리 상인, 폐기물 수거 노동자 등이 있다.

SEWA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1986년부터 상기니 아동돌봄 협동조합(Sangini Child Care Workers Cooperative)를 운영하고 있다. 구자라트 주 내에서 33곳, 아마다바드에서 11곳, 교외 지역에서 20곳을 운영 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센터 덕에 엄마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 중 64%가 센터 덕에 노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월 500~1000루피(한화 7860~1만5720원) 가량 소득도 늘었다고 답했다.

SEWA 모델과 비슷하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아이들을 돌보는 통합 아동 발전 서비스(ICDS,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chemes) 센터도 있다. 다만, ICDS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SEWA보다 짧다.

SEWA의 보육 환경도 양호하다. 센터는 0~5세 아이들을

받는데, 수용 가능한 인원은 센터당 30명 이하다. 돌봄 선생님은 모두 상기니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센터별로 2명씩 배정된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월 150루피(2358원)를 지불하는데, 이는 센터 운영비용의 10~1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부 펀딩, SEWA 내 사내벤처, 후원금 등에서 충당한다.

SEWA는 ICDS 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직원들과 상호교류하며 얻게되는 정보들을 SEWA 회원들에게 교육한다.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이 아동 돌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SEWA의 사례는 공공 아동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좋은 선례가 된다.

4. 인도 : 아동돌봄 전국 연합회 'FORCES'

인도에는 태아부터 6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게 목표인 조직이 있다. FORCES(Forum for Creche and Child Care Services)라 불리는 이 조직은 여성, 아동, 노동자 인권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다. "아동이 돌봄받아야 하는 권리는 엄마의 노동권과 연결돼있다"는 가치 아래 활동 한다. 1989년 17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네트워크는 2015년 기준 인도 내 10개 주에 걸쳐 450개가 넘는 회원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FORCES는 인도의 아동돌봄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들은 국가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에 아동 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넣어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이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관철시켰다. 또 해당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연구한다.

건강권·교육권·식량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해 목소리를 키운다. 이런 활동으로 아동돌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13년에 통과된 식품권리법(Right to Food Act)이 한 예다. 해당 법은 6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이 통합 아동 발전 서비스(ICDS) 센터를 통해 필수 식량과 영양을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FORCES는 주·국가 차원에서 아동돌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여론을 조성한다. 2015년 델리 주에서는 주 선거를 앞두고 탁아소 설치에 관한 1만 5000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고, 새로운 당이 당선된 이후 300개 공공 탁아소를 설치했다.

⁵⁾ 출처: WIEGO Child Care Initiative [클릭](#)

비공식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아동 돌봄

5. 시사점

브라질 ASMARE 협동조합 사례는 비공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자 단체 및 협동조합이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가나에서는 상인 조합이 나서서 정부 당국과 논의해 서비스의 품질을 올릴 수 있었다. 인도 SEWA 협동조합은 공공 아동 돌봄과 민간 아동 돌봄이 서로 연대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렸고, 인도 FORCES 역시 여론을 형성에 아동 정책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비공식 노동자들이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단, 이와 같은 성공 배경에는 공공 아동 돌봄 제도 마련과 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역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여성 비공식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정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시민 조직과 연대를 했기에 가능했다. 공공 돌봄을 노동자 권리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질의 아동 돌봄이 있어야만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공식 노동의 짐도 덜 수 있다.

1. 발간정보

[BAMEStream]

- 발간기관 : BAMEStream
- 발간국가 : 영국
- 발간시기 : 2019
- 제 목 : BAME 정신 건강 서비스의 국가 지도
(National Mapping of BAME Mental Health Services)
- 주요내용 : BAME(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민족 등) 커뮤니티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 건강 및 웰빙 서비스의 지원 방향 제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Espace MUNI]

- 발간기관 : Espace MUNI
- 발간국가 : 캐나다
- 발간시기 : 2014
- 제 목 :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Un service de garde éducatif à la petite enfance qui prend racine dans sa communauté)
- 주요내용 : 퀘벡주의 아동보육네트워크와 개발, 자치구의 보육서비스 역할 및 책임, 지역사회를 위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지원, 향후 계획 등을 제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ILO]

- 발간기관 : ILO, WIGO
- 발간시기 : 2018
- 제 목 : Cooperatives meeting informal economy workers' child care needs
- 주요내용 : 자영업자를 하는 여성의 보육에 관한 보고서로, 자영업 노동자 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회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브라질, 인도, 과테말라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소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ocial Enterprise UK]

- 발간기관 : Social Enterprise UK
- 발간국가 : 영국
- 발간시기 : 2021
- 제 목 : Integrating Care - next steps to building strong and effective integrated care systems across England
- 주요내용 : NHS England 및 NHS Improvement의 계획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개발된 '영국의 통합케어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컨설팅 내용 및 Social Enterprise UK의 입장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ustain]

- 발간기관 : Sustain, Trust for London, London FOOD LINK
- 발간국가 : 영국
- 발간시기 : 2020
- 제 목 : 21세기를 위한 바퀴 달린 식사 : 코로나19 이전, 기간 및 이후 런던의 바퀴 달린 식사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Meals on wheels for the 21st century : A report exploring meals on wheels services in London before, during and after Covid-19)
- 주요내용 : 노인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매일 적어도 한끼의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그 기간 동안 런던 전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소개하고 노인 돌봄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가능성 전망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2. 기타동향

[BARRON'S]

- 국 가 : 미국
- 성 격 : 뉴스
- 주요내용 : 코로나19가 노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현황과 지역사회 내에서 노노케어를 수행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성 제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CISION PRWeb]

- 국 가 : 미국
- 성 격 : 뉴스
- 주요내용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최초로 도입한 노인들이
집에서 머무르며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소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The Guardian]

- 국 가 : 영국
- 성 격 : 뉴스
- 주요내용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보육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필요성을
소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관련 원활한 지식교류 및 정보 확산을 위해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례를 격월로 발간하는 정책매거진입니다.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이메일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 및 이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 (☎) 031-697-7774 (e-mail) jskim@ikosea.or.kr

발행인 정현곤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편집** 이로운넷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더 읽어볼 참고 사이트

연번	기관명	주요내용
1	Age Concern Eastbourne 바로가기 클릭	미국 Age Concern Eastbourne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서비스, 예약필수서비스, 유료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 지방정부기금을 일부 받으나, 자선과 기부금으로 지역 기반의 독자적인 재정을 가지고 운영
2	ACE Nursery 바로가기 클릭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ACE Nursery는 1966년에 설립된 부모협동조합 형태로 여러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식사 장보기, 세탁, 시설 수리 등 다양하게 참여
3	Beacon Hill Village 바로가기 클릭	미국의 Beacon Hill Village는 노인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며 지내는 노노케어 방식의 비영리단체를 설립. 일부 비용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식료품 쇼핑 등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집안일 서비스 등은 유료로 제공
4	Care4all 바로가기 클릭	Care4all은 North East Lincolnshire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모든 서비스는 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및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CPE, Centres de la Petite Enfance 바로가기 클릭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CPE(Centres de la Petite Enfance) 아동센터는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며, 2018년 기준 9만 5327명의 영유아(전체 영유아 대비 약 22%)에게 서비스 제공함. CPE는 퀘벡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지급하는 전체 지출액의 80% 수준(2016년 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상징으로 불리며, CPE의 성장은 퀘벡의 사회적경제 발달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6	CBC 바로가기 클릭	가족의 사별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사회 보살핌을 강화하기 위해 1959년 Richmond upon Thames에서 자선단체 Cruse Bereavement Care(CBC) 설립. CBC는 유가족에게 사별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인 대상 프로젝트 중 치매환자 및 노인의 사별 지원을 위한 Bereavement supporter project(2017-2021)를 진행
7	CADIAI 바로가기 클릭	이탈리아 CADIAI의 CARABAK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 협동조합이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보육정책임. 카디아이와 급식노동자협동조합인 캄스트(CAMST), 건축노동자협동조합인 치페아(CIPEA)등의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 볼로냐시로부터 사업을 낙찰받음. 치페아가 보육시설을 짓고, 카디아이는 운영을 맡으며, 캄스트는 급식을 제공하는 구조
8	CHCA,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바로가기 클릭	1985년 설립되어 매년 600명 이상의 저소득 및 실직 여성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택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현재 2000명이 고용되어 가정 건강 보조원으로 활동하는 미국 최대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 CHCA는 2012년에 B-Corp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홈케어 기업
9	Espace MUNI 바로가기 클릭	캐나다 퀘벡의 아동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 이 외에도 가족친화, 고령친화, 사회약자 친화적 도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더 읽어볼 참고 사이트

10	<p>GSD, Gredos San Diego Co-operative</p> <p>바로가기 클릭</p>	<p>교사·직원·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으로 총 1500명의 교사·직원 중 80%인 12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 생후 4개월 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의 교육은 물론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2~3교대로 수업 시간을 운영해 학교 공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p>
11	<p>HMR Circle</p> <p>바로가기 클릭</p>	<p>HMR Circle(Heywood, Middleton&Rochdale Circle)은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이웃 간 품앗이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는 로치데일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서클을 운영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와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p>
12	<p>LEYF, London Early Years Foundation</p> <p>바로가기 클릭</p>	<p>영국 소재 LEYF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42개 보육원을 15개 보육 허브로 그룹화하여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긴급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을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홈 러닝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직접 제작한 영상을 가정 학습 페이지에 주3회 게시하고 ZOOM을 통해 아이가 학습 제공자 및 친구들과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p>
13	<p>MINE,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p> <p>바로가기 클릭</p>	<p>마더센터는 1980년대 독일에서 시작 돌봄 공동체로 부모교육 과정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에서 풀뿌리 여성의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25개국 1000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음. 국내에서는 춘천 여성 협동조합에서 2013년 협동조합으로 등록 후 도시형 마을기업으로 마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의 관악, 성동구, 대전의 대덕, 경산에 마더센터가 개소</p>
14	<p>PIRS</p> <p>바로가기 클릭</p>	<p>캐나다 밴쿠버 소재의 PIRS(Pacific Immigrant Resource Society)는 이민자 여성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민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커뮤니티 조직으로, 0~18개월 자녀로 둔 이민자 부모에게 'Mothergoose' 프로그램 제공</p>
15	<p>SEWA Sangini Child Care Workers' Cooperative</p> <p>바로가기 클릭</p>	<p>인도의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는 자영업 여성을 대표하는 인도의 노동조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음. SEWA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SEWA Sangini Child Care Workers' Cooperative 설립하였고, 센터 운영자와 부모가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보육시설 운영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선발해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센터는 예방접종, 1차 건강관리, 부모들을 위한 영양 자문 등 공공돌봄 서비스의 허브 역할로 활동</p>
16	<p>Salford Together</p> <p>바로가기 클릭</p>	<p>CCG(Clinical Commissioning Group)와 시의회는 예산을 통합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및 사회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케어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 간호사, 사회복지사, 병원 컨설턴트, 약사 및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서비스 제공</p>
17	<p>The Foster Care Co-operative</p> <p>바로가기 클릭</p>	<p>영국 소재 The Foster Care Co-operative는 위탁부모제도의 투명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위탁부모, 사회복지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표명하며 1999년 설립. 현재 50여개 지자체의 위탁가족 알선을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려 수익의 52%는 위탁부모에게, 24%는 지원부서와 연수 경비로, 24%는 사회복지사, 직원 급여로 사용</p>

더 읽어볼 참고 사이트

18	<p>The Active Seniors Association</p> <p>바로가기 클릭</p>	<p>핀란드의 The Active Seniors Association은 노인들을 위한 사설주택조합 'ASUNTO Oy HELSINKI LOPPUKIRI'를 만들어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을 챙기며 공동체를 이루는 '노노케어' 시스템을 도입. Loppukiri 실버하우스는 총 7층으로 58채의 독립 아파트와 공동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중장년층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합창단, 요가클럽 등 15개 동아리 및 재능 나눔을 통해 스스로 돌보는 공동체를 구성함</p>
19	<p>UPAVIM Cooperative</p> <p>바로가기 클릭</p>	<p>수공예품을 만드는 여성 회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수공예품 판매금과 기부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지역의 탁아소 및 유치원, 대학학습센터(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종일 돌보기관) 운영</p>
20	<p>Willow Den</p> <p>바로가기 클릭</p>	<p>영국 에든버러 소재 Willow Den 사회적기업은 코로나19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3-5세 어린이 대상으로 야외 환경에서 조기 학습 및 보육을 제공하는 '야외 보육원' 체인사업을 시작함. Willow Den은 2026년까지 빈곤지역을 포함하여 스코틀랜드 전역에 야외 보육원 8곳을 세우고 최대 200명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3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 시작으로 2021년 8월에 Spartans Community Football Academy와 협력하여 하루 최대 24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보육원을 세울 예정</p>